

기관소식



농림축산식품부

네덜란드 및 영국산 가금 등 수입금지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네덜란드와 영국 검역당국에서 자국 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실을 발표함(11.16일, 현지시간)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앵무새 등)와 가금육(닭고기, 오리 고기 등) 등 축산물의 수입을 11.17일자로 전면 금지했다.

네덜란드와 영국 검역당국은 각각 산란계와 종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여 발생농장의 가금에 대한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입금지조치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국내 가금류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조치이며 가금육의 안전성과는 무관하다.

농식품부는 최근 EU지역*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지역 여행객들이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 독일(11.4일 발생, H5N8), 네덜란드(11.14일 발생, H5N8), 영국(11.14일, H5, N타입은 검사 진행 중)

특히 축산업 종사자가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과 출입국 시 공·항만 입국장내 동물검역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14년 전 세계 HPAI 발생국 현황(총 15개국)
: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인도, 네팔, 리비아, 라오스, 북한, 일본, 대만,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 우리나라

농림축산검역본부

민관 합동 방역 홍보 캠페인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지역본부장 이지우)는 11월 7일(금)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서부축산물검사소(소장 최권락)와 합동으로 경기도 부천에 소재한 부천 축산물공판장(도축장)에서 가축운송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소독실시 요령 홍보와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다짐하고 결의하는 민관 합동 방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 캠페인은 전남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

기 위해서는 가축운송 차량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올바른 소독이 중요한 시점에서 도축장으로 출입하는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검역본부, 지자체, 업체관계자 등이 합동으로 홍보 캠페인에 참여함으로써 축산시설 내에서의 차량 소독의 중요성을 알리고, 철저한 차단 방역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관내 축산시설(도축장 등)등을 순회하면서 방역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014년 가금질병 분야별 협의체 개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지난 11월 6일 가금질병 내·외부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가금질병 분야별 협의체』를 개최했다.

분야별 협의체는 2005년 각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역본부 협의체로서 현장에서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맞춤형 연구 과제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그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질병뿐만 아니라 최근 현장에서 질병 발생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호흡기 질병과 면역억제 질병에 대한 현장맞춤형 대응연구 추진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최근 양계 현장에서 마이코플라스마 시노비에

(MS), 닭 호흡기 기관지염(IB), 닭 후두기관지염(ILT) 등 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 질병에 대한 실태조사, 병원체 유형 감시 및 특성 분석, 예방백신 등 질병피해 저감을 위한 대응 연구 추진을 제안하였다.

또한, 최근 닭전염성 빈혈, 콕시듐 등 면역억제 질병의 감염으로 가금아데노바이러스 등 2차 감염 피해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어 면역억제 원인 구명 및 효과적인 예방 기술 개발 등 면역억제성 질병에 대한 피해예방 연구 추진을 제안하였다.

검역본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결과들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축산농가가 체감하는 현장맞춤형 연구를 강화하여 정부3.0 개념에 부합하는 개방·공유·소통·협업을 실천하는 데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겨울철 식중독, 노로바이러스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식품 조리과 개인위생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추이를 보면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 발생은 연간 평균 38건이며 이 중 약 45%(17건)가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특히,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환자는 연간 평균 451명으로 겨울철 전체 식중독 환자(861

명, 52%)의 절반이 넘고 있다.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추운 날씨로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고 실내 활동이 많아져 사람 간 감염이 쉽기 때문이다.

노로바이러스는 일반 세균과는 달리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오랫동안 생존하고, 적은 양으로도 사람 간 접촉에 의해 쉽게 전파될 수 있다.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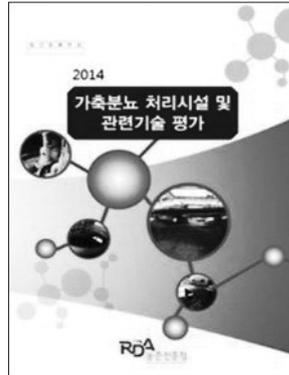
- 외출에서 돌아온 후, 화장실 사용 후, 식사하기 전, 식재료 취급 등 조리 시작 전·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를 이용하여 흐르는 물에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 가열 조리하는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고 (85℃, 1분 이상), 조리가 끝난 식품을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채소, 과일 등 가열하지 않고 섭취하는 식품은 채소·과일용 1종 세척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어서 먹도록 한다.
- 굴 등 어패류는 되도록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한다.
- 조리기구와 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후 열탕 또는 염소소독하고,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한다.
※ 염소계 소독제 사용법 : 가정용 염소소독제(유효 염소농도 4% 기준)를 200배 희석(조리기구 등 소독용) 또는 40배 희석(환자 오염물 소독용)하여 사용
- 조리자가 배탈,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음식물 조리를 중단하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최소 2주 이상 조리하지 않도록 한다.
- 화장실 변기, 문손잡이 등 환자 구토물, 분변이 묻은 곳은 가정용 염소계 소독제를 40배 희석하여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항 바이러스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고 이전에 감염되었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에서는 음식물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 기술 평가 결과 공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해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 기술을 평가한 결과를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 공개(11월 3일 게재)했다. (농촌진흥청

누리집 : www.rda.go.kr,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 : www.nias.go.kr)

평가 결과는 전국 각 도·시·군청의 축산 또는 환경부서,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에도 책자로 배부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 정보 책자는 올해 평가 정보 제공 대상인 8개 시설을 비롯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25개 시설 등 33개 시설에 대한 정보가 실려 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 기술 평가는 산업

체·학교·기관·연구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분뇨 처리시설 평가 전문 위원회'가 서류심사, 기술발표 심사, 현지 평가 등 세부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했다. 평가 대상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퇴비화, 액비화, 정화, 에너지화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관련 기술이며, 처리 용량에 따라 농가형과 공동형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평가는 지난 2006년 시작으로 해마다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 제공 후 5년이 지난 시설은 재평가하며, 그 중 평가기준을 충족한 시설은 정보 제공 대상에 포함한다.

이 평가는 해마다 1회 수행하며 2015년 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주체는 내년 상반기 2015년 평가 실시 공고를 참고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장 최동윤,
축산환경과 정광화 031-290-1732**

농촌진흥청

리코펜 강화 닭사료 첨가제 제조법 개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너무 익어(완숙) 상품성이 낮은 토마토 부산물을 이용해 리코펜이 함유된 닭 사료첨가제를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다. 토마토에는 항암작용을 하는 리코펜 성분이 들어있다. 빨간 카로티노이드의 색소인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암을 일으키는 주성분인 활성산소를 없애 세포의 노화와 산화를 막

는다.

폭 익은 토마토 부산물로 사료첨가제를 만들어 닭에게 먹이면 달걀의 영양과 품질이 좋아진다. 사료첨가제를 만들 때는 토마토부터 송풍건조기로 24시간~48시간 말린다. 토마토 분말 1에 식물성 기름(옥수수유 등)을 0.3의 비율로 섞는다. 마지막으로 유화제 역할을 해주는 레시틴을 0.2%~0.5% 넣는다. 이렇게 완성된 사료첨가제의 최종 리코펜 농도는 약 370mg/kg이다. 일반사료를 먹인 닭의 달걀은 리코펜이 검출되지 않는데 비해, 토마토 사료첨가제를 먹이면 한 알에 약 43.14μg의 리코펜을 함유한 달걀을 생산할 수 있다.

리코펜이 들어 있는 사료를 먹여 생산하면 달걀의 품질도 좋아진다. 실험해보니 노른자위(난황)의 색이 짙고 광택이 좋았다.

알껍질(난각)의 강도도 약 119kg/cm²으로 일반사료(약 111kg/cm²)를 먹었을 때보다 약 8kg/cm² 높게 나타났다. 껍질이 두껍고 단단하면 달걀을 운반하거나 보관할 때 깨지는 비율이 줄어든다.

토마토를 이용해 만든 사료첨가제를 알을 낳은 닭에 먹일 때는 사료 1kg당 약 25g을 넣고 잘 섞어 주면 된다.

이 기술은 국립축산과학원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장인석 교수연구팀이 공동으로 개발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하는 「축산분야 영농활용 기술 모음집」에 제조법을 실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박병영 축산물이용과장은 “완숙 토마토 같은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사료첨가제는 농가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며, “달걀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1) 리코펜 : 잘 익은 토마토 등에 존재하는 카로티노이드 색소의 일종으로 항암 작용을 하며,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과 함께 대표적인 카로티노이드 계통임. 리코펜이라고도 불리며 성질은 카로틴과 비슷함. 리코펜은 카로티노이드 중 가장 잘 알려진 베타카로틴에 비해 항산화능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2) 유화는 두 개의 섞이지 않는 액체를 강력히 교반하여 한 개의 액체가 아주 작은 방울 상태로 안정하게 다른 액체에 분산되어 에멀전(emulsion)을 형성하게 하는 조작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 산업단지세어드서비스와 B2B거래 위한 협조체계 구축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사장 윤용건), 한국산업단지세어드서비스(대표이사 왕영호) 3개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T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단지 내 입주사 대상으로 농수산물 등 식재료를 직거래로 공급하여, 대량구매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등 규모의 경제 실현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성남산업단지 내 입주한 3,300개소의 중소기업체와 45,500명의 임직

원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후생 등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은 협력사인 한국산업단지세어드서비스와 함께 단지 내 입주사의 농수산물 수요를 파악하여 aT에 요청하면, aT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를 통해 다양한 산지 및 우수 회원사 제품을 최적의 공급단가로 거래 알선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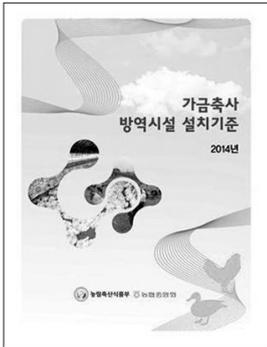
우선, 협약체결과 동시에 aT는 연말 김장철을 맞이하여 산업단지 내 입주사 대상으로 절임배추 100여 톤을 시중 가격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B2B 거래 시스템을 통해 직공급 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기별·계절별에 따른 입주사 니즈에 맞는 품목을 알선 공급하여 유통비용과 거래단가를 낮출 계획이다.

aT 김재수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농수산물을 온라인으로 직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협업 성공모델을 기반으로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로 협조체계를 확대 구축하여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 홍보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최근 AI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예방과 사전 가금농장의 질병 차단방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마련, 홍보책자<사진>와 팜플렛으로 제작해 전국 지자체 및 축협, 가



금관련 협회 등에 배부했다.

홍보책자에는 가금농장의 울타리, 차단출입문 및 표지판, 차량(대인)소독시설, 신발소독조, 새그물망, 구서시설 등에 대한 설

치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축사 내외부에 바로 인접해 설치할 수 있도록 '축사전실' 기준도 제시해 효과적으로 질병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가가 농장의 방

역시설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 방역시설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농협 축산건설팀부 관계자는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가금축사 방역시설 개선 및 설치 유도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가금축사 방역시설 설치기준 마련과 책자 및 팸플릿 배부가 농가의 방역의식 제고와 경각심을 고취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경제신문 [2014. 11. 14]

